

# 경제동향

##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소비**

서울의 4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0%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서울의 백화점 판매액은 1조1,058억원으로 전국(2조4,193억원)의 45.7%,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897억원으로 전국(3조4,226억원)의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대형마트 판매는 2.9% 각각 감소하였다. 전국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한 편의점이 1위를 차지했다.

**고용**

서울의 4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남·녀 취업자 수는 각각 0.4%, 0.1% 증가, 고용률 0.6%p, 실업률 0.1%p 하락하였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4개월 연속 줄던 감소폭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으로 7개월 연속 물가지수 증감률의 상승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한 반면,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0.4% 하락하였다.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0.2%p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가격은 새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속에 매매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선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지역 특히 관악구와 강서구,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

## | 생 · 산 |

## 서울의 4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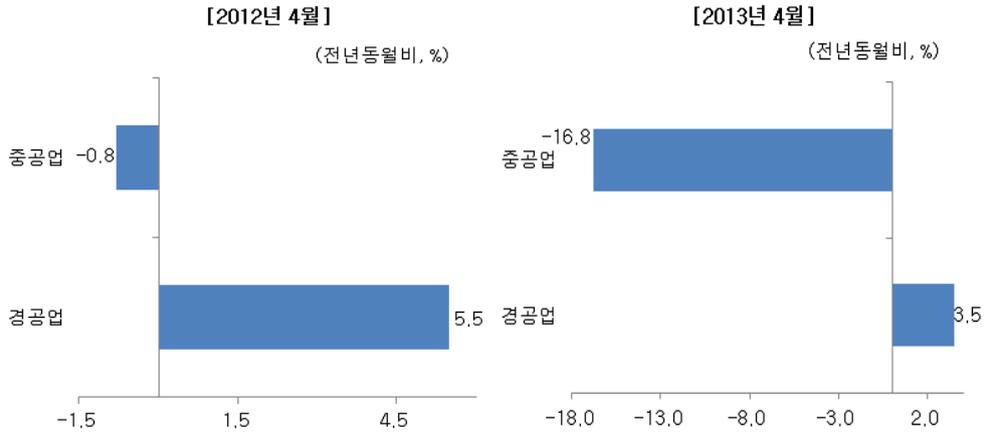
## ■ 서울의 4월 산업생산지수 2013년 3월에 비해 다시 하락세

- 서울의 2013년 4월 산업생산지수 93.5(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6.8% 감소, 경공업부문은 3.5% 증가
- 전년동월대비 섬유제품(63.5%), 의료정밀과학(22.8%), 고무 및 플라스틱(20.4%) 증가, 화학제품(-35.4%), 기계장비(-33.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9.6%) 각각 감소
- 3월 지수 100을 상회하다가 다시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하락폭은 2개월 연속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4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4월 광공업 생산은 108.2(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제조업 생산은 108.5(2010=100)이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14.6%), 기계장비(-3.9%)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9.9%), 화학제품(6.4%) 등에서 증가하여 총 1.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예술·스포츠·여가(-3.0%), 숙박·음식점(-1.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6.7%), 운수(4.1%) 등에서 증가하여 총 2.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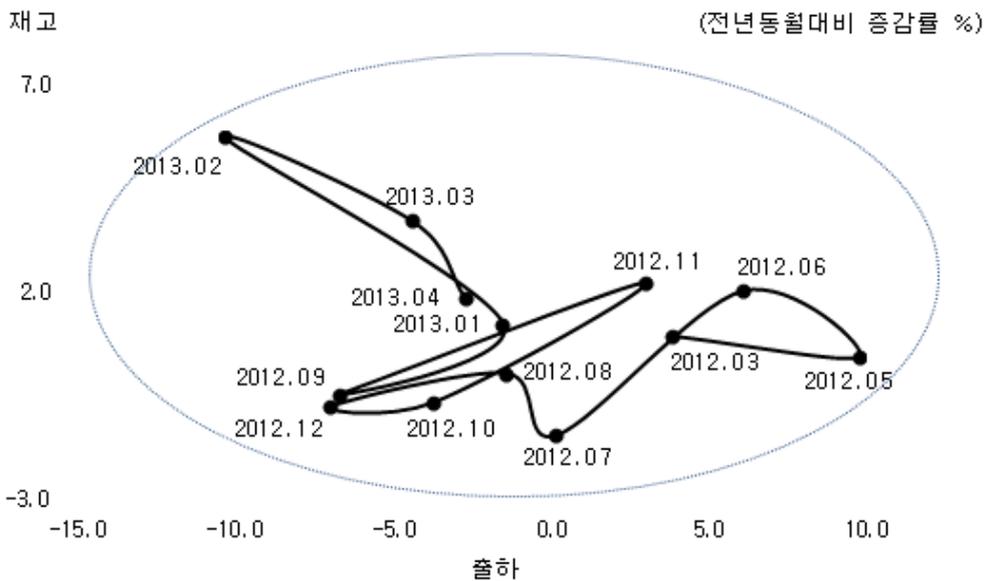
##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4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중 단계

- 서울의 4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4월 재고지수는 98.8(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서울의 4월 출하지수는 104.3(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3.0%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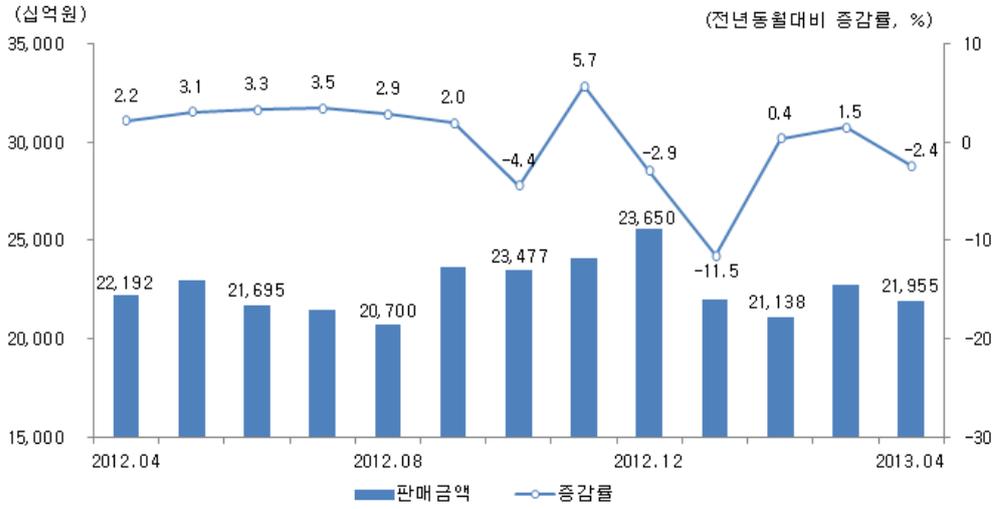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 소 · 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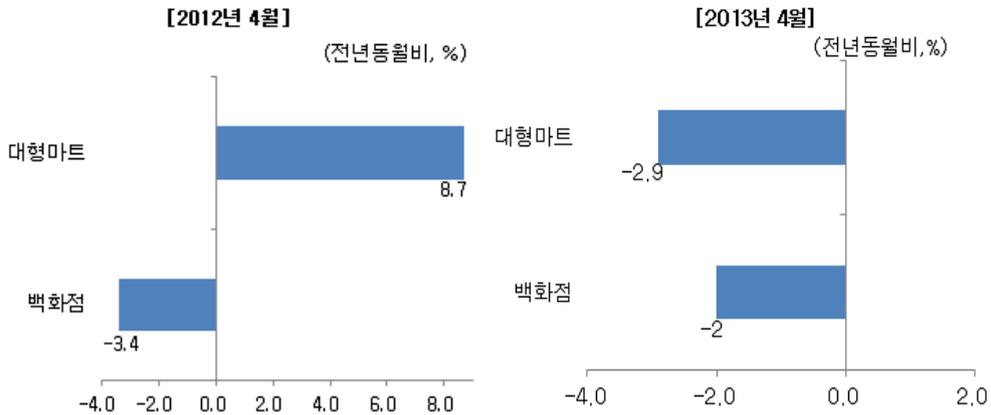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판매액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대형마트 모두 감소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955억원으로 전국(5조8,419억원)의 37.6%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058억원으로 전국(2조4,193억원)의 45.7%,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897억원으로 전국(3조4,226억원)의 31.8%를 차지
  - 서울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9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대형마트 판매는 2.9% 각각 감소
  
- 전국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20.7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 대형마트는 2.3% 각각 감소
  
- 전국의 4월 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편의점(11.5%)가 1위를 차지
  - 전국의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28조 6,52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전국의 4월 소매판매액지수를 재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5.6%),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1.1%)가 늘어 2.2% 증가
  -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편의점(11.5%), 무점포소매(8.4%), 승용차·연료 소매점(6.5%), 슈퍼마켓(5.2%) 등은 증가, 대형마트(-2.3%), 백화점(-2.1%), 전문소매점(-1.8%)은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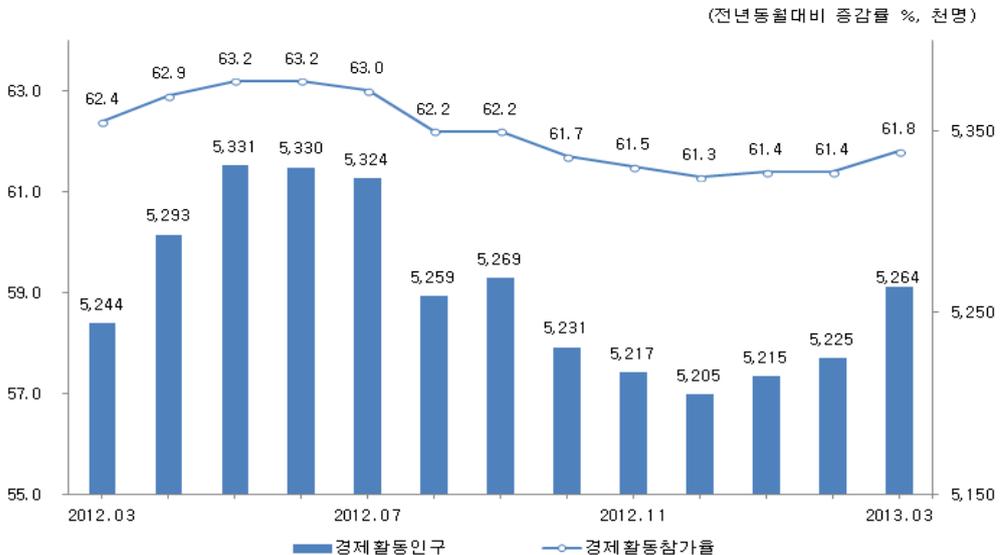
서울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62.2%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 ■ 서울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서울의 4월 15세 이상 인구는 852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5천명(1.2%)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9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0.1%)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22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3.2%)이 증가

### ■ 전국의 4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4월 15세 이상 인구는 4,200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4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92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5천명(1.1%)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08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3천명(0.2%) 하락하였으며, 여자는 1,084만명으로 13만2천명(0.0%)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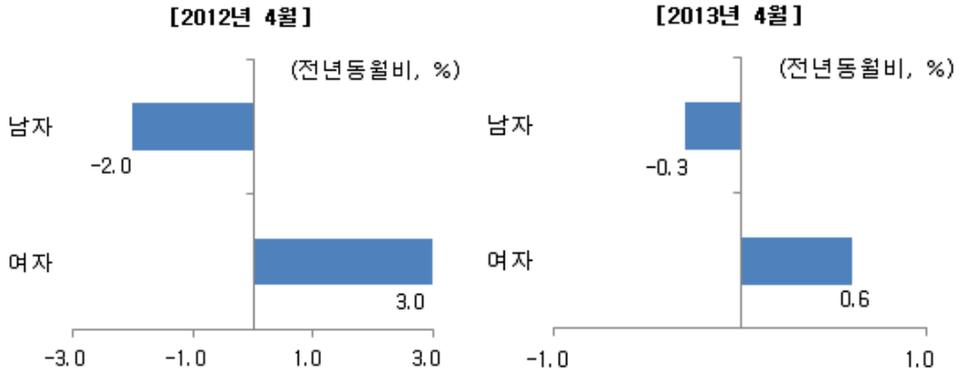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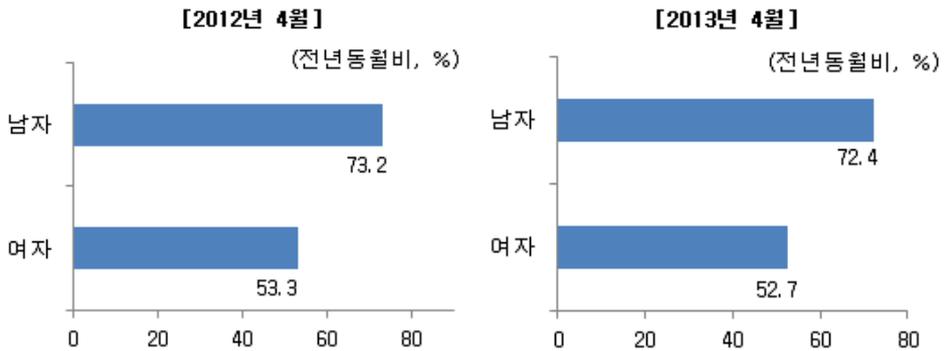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인구 남자 하락, 여자 증가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6만5천명, 여자는 233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3% 하락, 여자는 0.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2.4%, 여자는 52.7%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8%, 여자는 0.6%p 각각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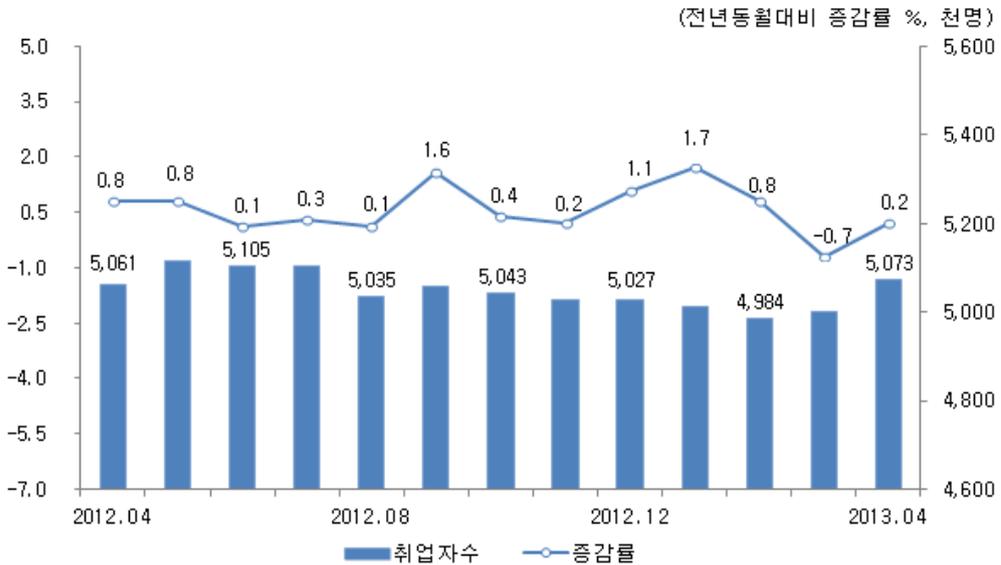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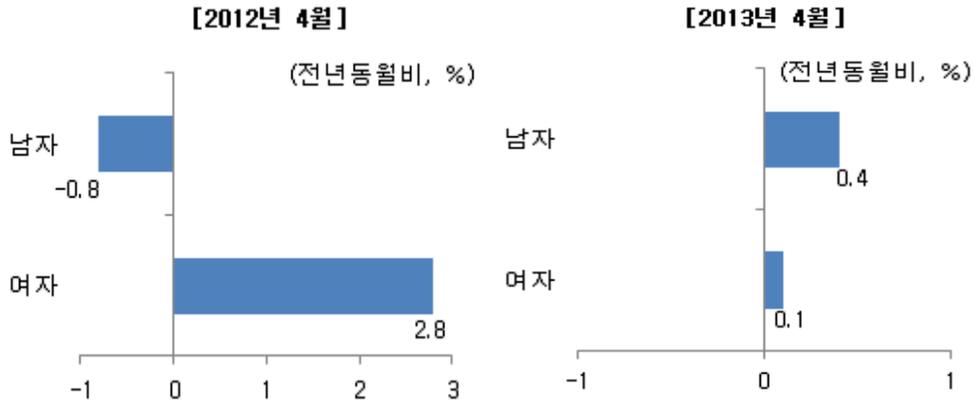
서울의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서울의 4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서울의 4월 취업자는 507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천명(0.2%)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4만3천명, 여자는 22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만1천명(0.4%), 여자는 2천명(0.1%) 각각 증가
- 전국의 4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4월 취업자는 2,510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5천명(1.4%)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58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9천명(1.3%), 여자는 1,051만8천명으로 15만6천명(1.5%)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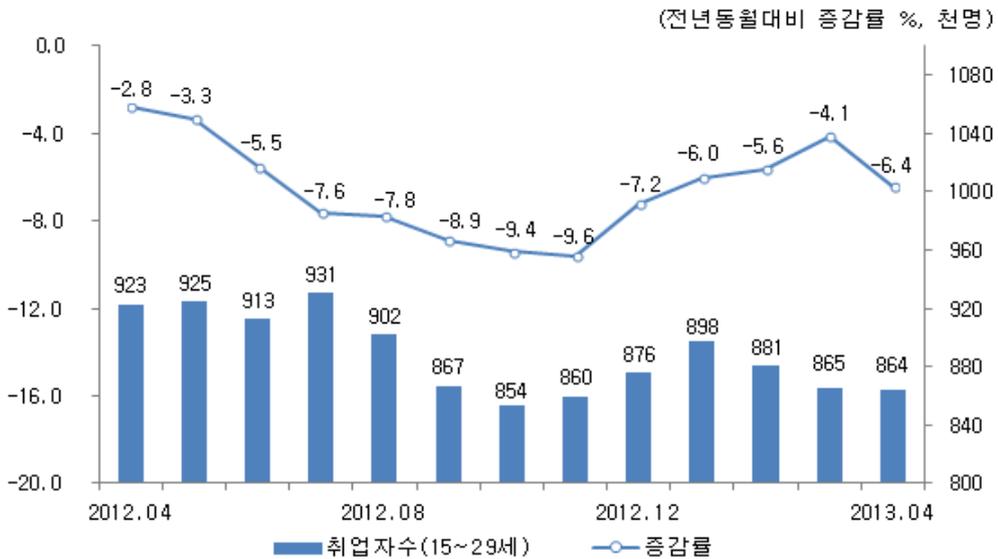
&lt;그림&gt;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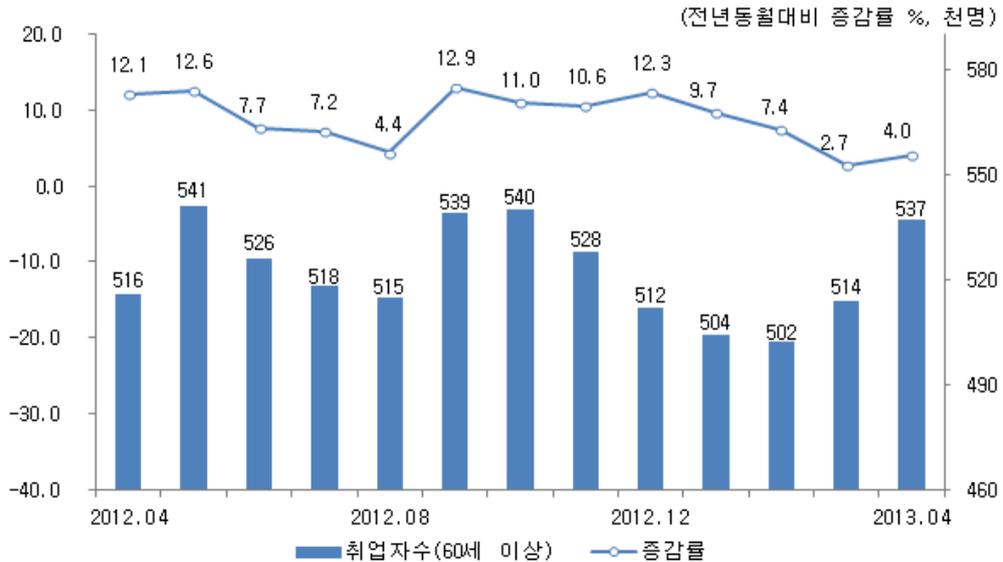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여전히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 서울의 4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 감소하며 전월대비 감소폭 증가
  - 서울의 4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3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 꾸준한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 산업별로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3천명(-51.9%), 제조업 5만4천명(-10.6%), 건설업 3만1천명(-8.5%), 도소매·음식숙박업 2만3천명(-1.7%) 등은 각각 감소
-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만명(8.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만2천명(2.6%)은 각각 증가

#### ■ 직업별로 사무, 관리자·전문가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5만9천명(5.9%), 관리자·전문가 7만1천명(5.0%)이 각각 증가
-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천명(-34.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7만9천명(-5.6%), 서비스·판매종사자 3만4천명(-2.8%)은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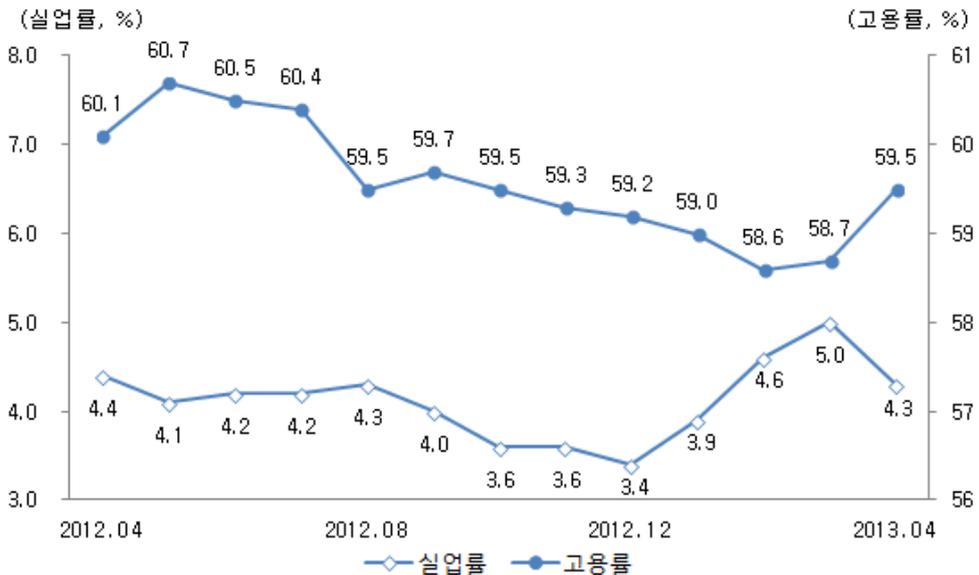
####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임금, 임금근로자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만7천명(-7.6%), 무급가족종사자는 1천명(-0.7%)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5만9천명(6.8%)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6만1천명(-5.2%), 일용근로자 7천명(-1.9%)이 각각 감소

## | 고·용·률·및·실·업·률 |

서울의 4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하락세

- 서울의 4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4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4%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여자는 50.4%로 0.8%p 감소
  - 2013년 4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9.8%)에 비해 0.3%p 낮은 수준
- 서울의 4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4월 실업자는 22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2.9%)이 감소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 여자는 4.5%로 0.6%p 증가
  - 2013년 4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2%)에 비하여 1.1%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 물 · 가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1%대 상승세

### ■ 서울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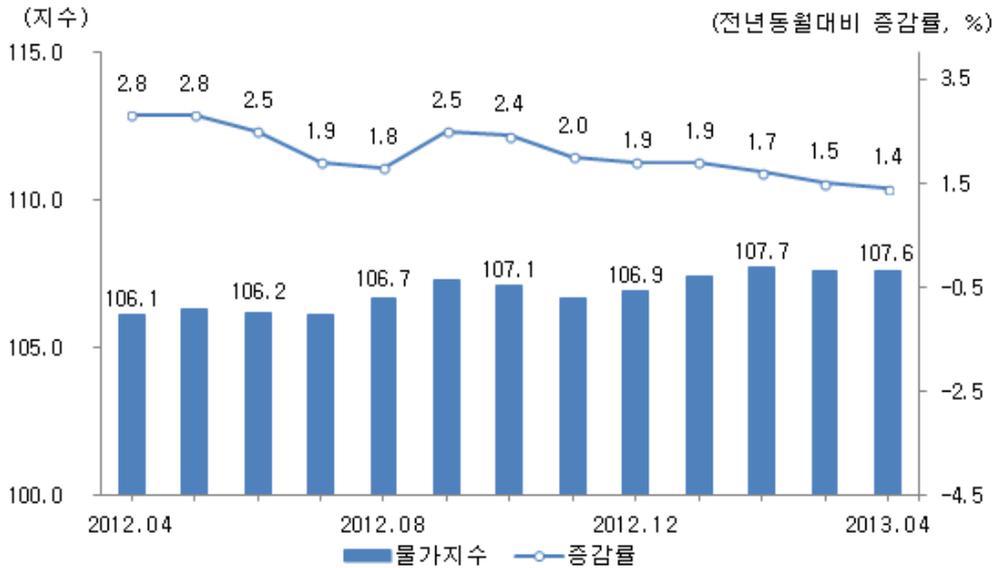
- 2013년 4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와 의류 및 신발이 각각 4.1%, 2.6% 상승, 교통에서 1.6% 감소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1.3% 하락,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는 0.6%, 6.5%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그 중 집세는 2.8%, 공공서비스 0.6% , 개인서비스 1.6% 각각 상승

### ■ 서울의 4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신선식품지수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4%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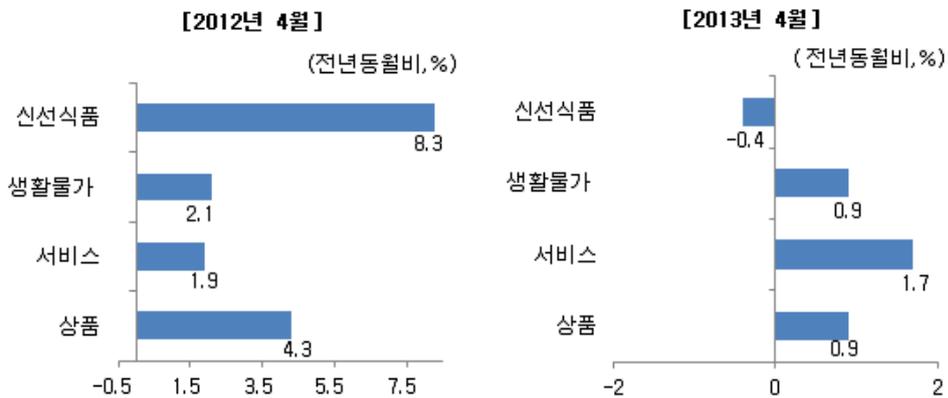
### ■ 전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2010년=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전북, 충남은 전국보다 높은 1.4~1.8% 상승률을 기록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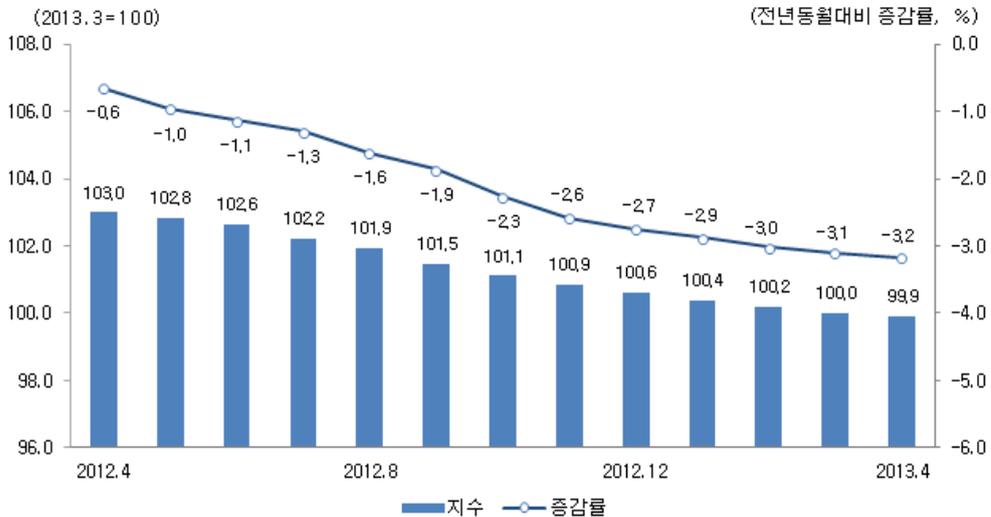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서울의 4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송파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08%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02% 상승한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13%, 0.03% 하락

■ 전국의 4월 주택매매가격 새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월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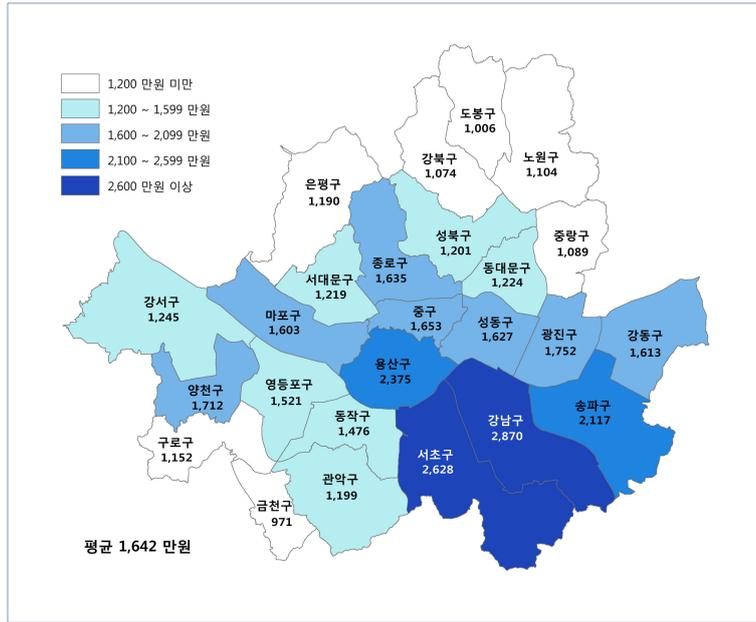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기대가격 차이로 인하여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합세를 보임
- 수도권은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13% 하락한 반면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19%, 0.1%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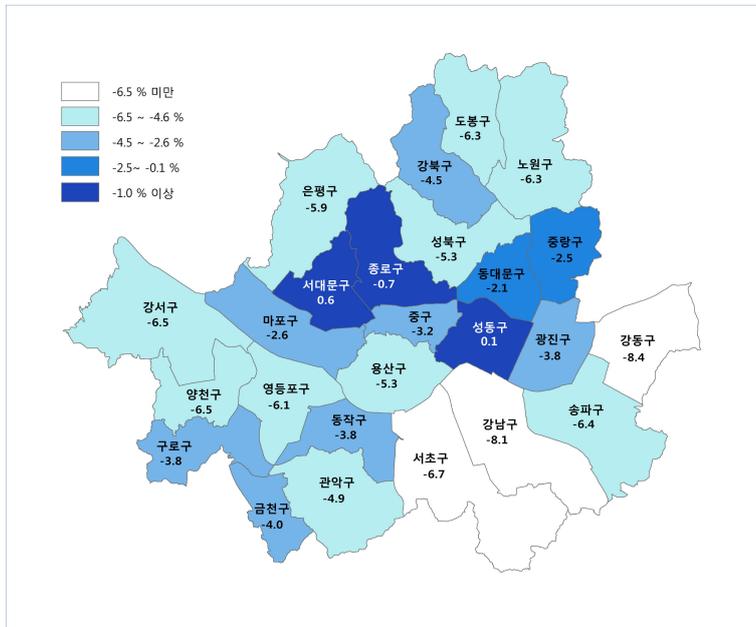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봉구, 성동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09% 하락**
  - 도봉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유지되며 매매시장이 장기적인 침체 부위기 속에 가격이 하락하며 전월대비 0.29%로 큰 폭 하락
- **강남지역은 송파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영등포구, 강서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06% 하락**
  - 송파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단지의 매매거래가 발생하고 삼성 SDS 기업 입주로 인하여 급매물이 거래되며 전월대비 0.14%로 소폭 상승
  - 영등포구와 강서구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유지되며 매매시장이 장기적인 침체 부위기 속에 가격이 하락하며 전월대비 각각 0.27%, 0.25% 하락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642만원으로 전월대비(1647만원)대비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15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2,870만원), 서초구(2,628만원), 용산구(2,375만원), 송파구(2,117만원), 광진구(1,75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71만원), 도봉구(1,006만원), 강북구(1,074만원), 중랑구(1,089만원), 노원구(1,10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4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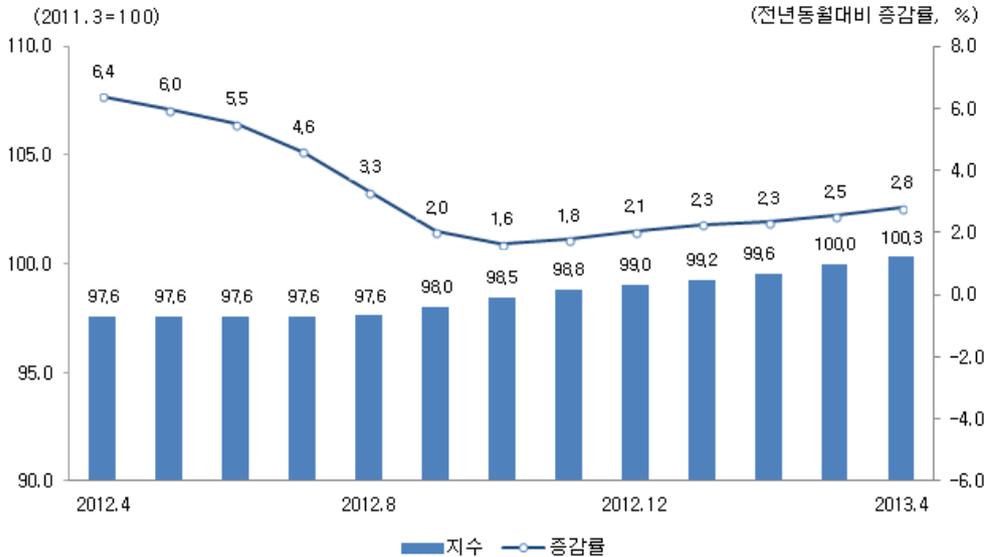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4월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은 8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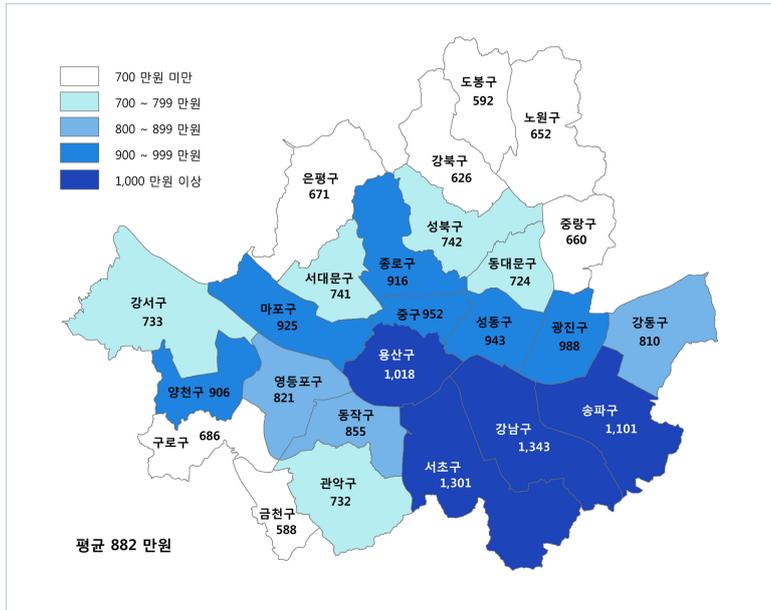
- 서울의 4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며 전월대비 0.34% 상승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41%, 0.20%, 0.26% 상승
  
- 전국의 4월 주택전세가격 장기적인 매매시장 침체로 전세 선호가 지속되며 상승세 유지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새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속에 매매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 선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0.36% 상승
  - 수도권,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36%, 0.38%, 0.36%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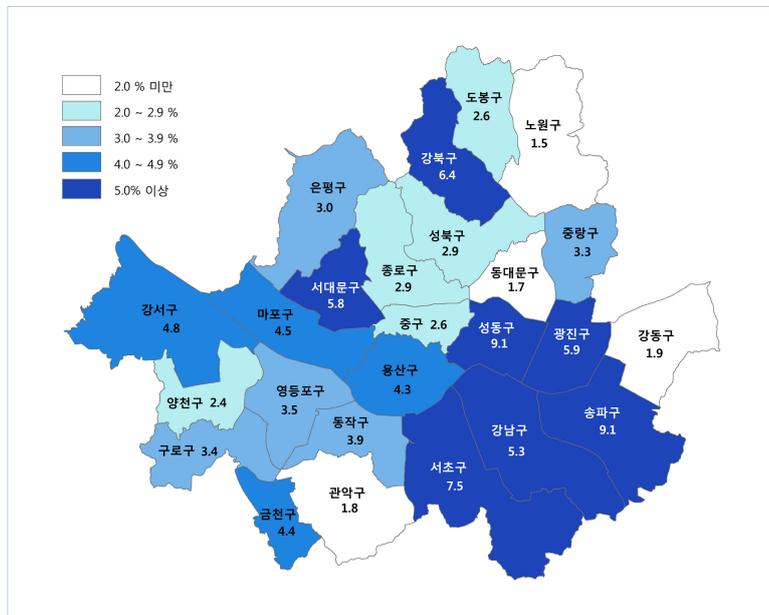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봉구, 성북구 순으로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30% 상승**
  - 도봉구에서는 봄 이사철 수요 및 신혼부부 수요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물량이 부족하여 소형 물건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월대비 0.75% 상승
- **강남지역 역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악구와 강서구가 다른 지역 대비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38% 상승**
  - 관악구는 신혼부부 수요 및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재계약 수요 등이 지속되며 전세물량 부족이 심화되며 전월대비 0.74%로 큰 폭 상승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82.0만원으로 전월대비(879.5만원)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1,343만원), 서초구(1,301만원), 송파구(1,101만원), 용산구(1,018만원), 광진구(98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88만원), 도봉구(592만원), 강북구(626만원), 노원구(652만원), 중랑구(66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4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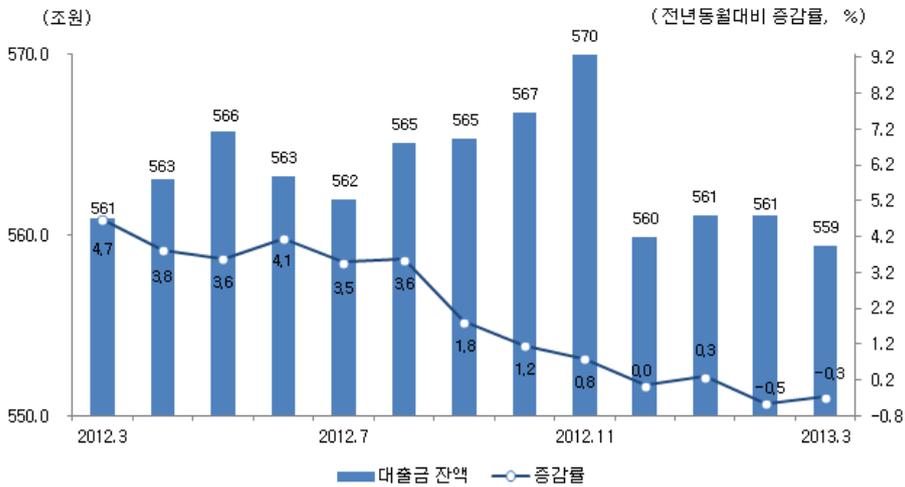
서울의 3월 가계대출과 주택대출 모두 전월대비 소폭 감소

### ■ 3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3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59조 429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6,625억원(0.3%) 감소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0조 6,635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8조 7,656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0% 감소, 2.8% 증가

### ■ 3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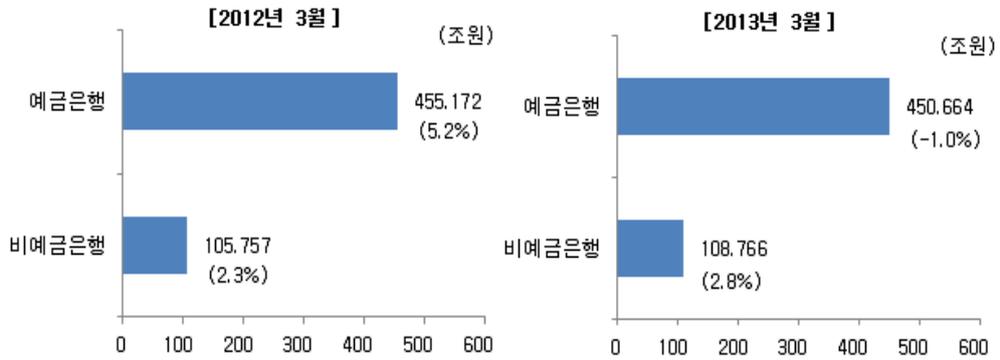
- 3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55조 4,641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 1,513억원(0.15%)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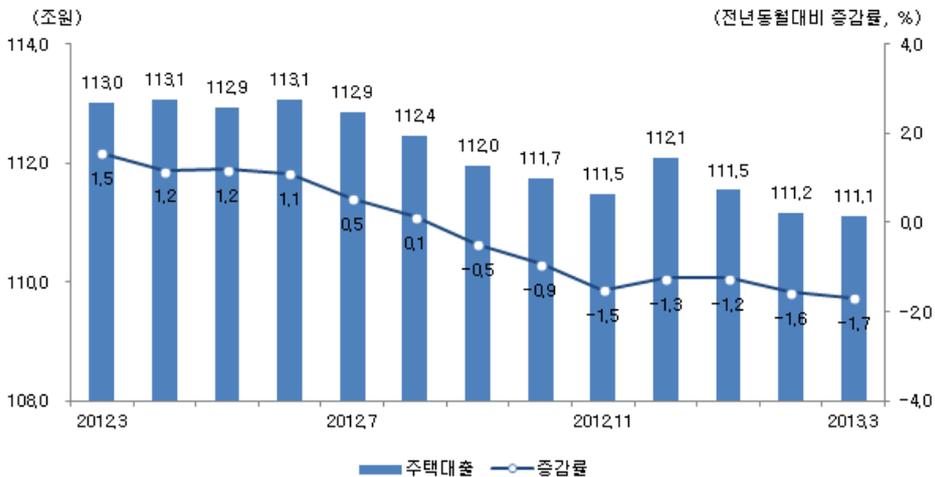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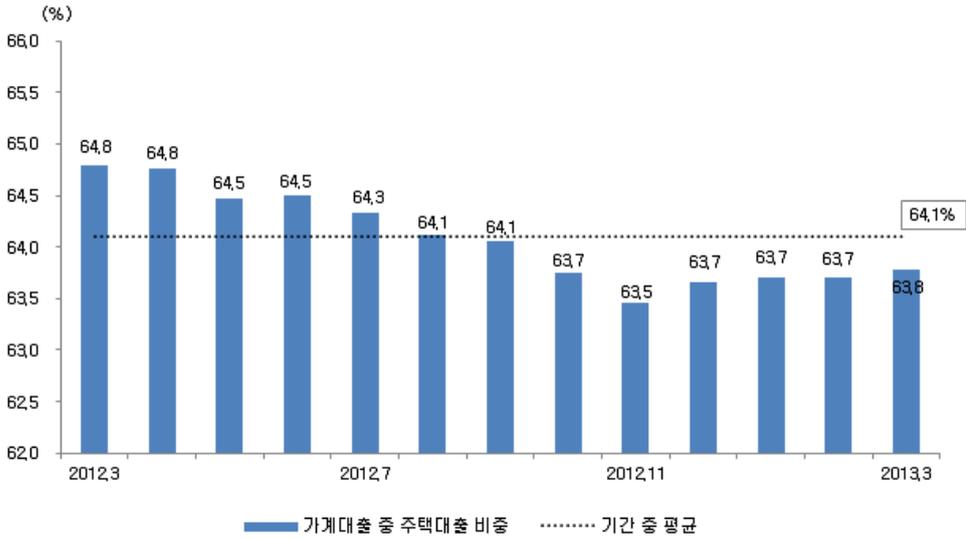
■ 3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3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4조 2,007억원으로 전월대비 2,975억원(0.2%) 소폭 감소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1,016억원(64.1%)으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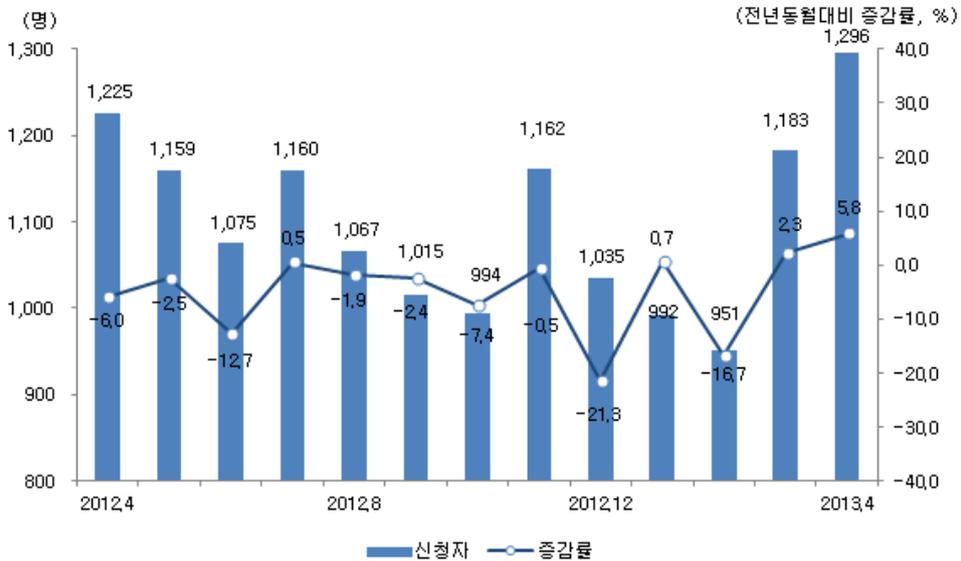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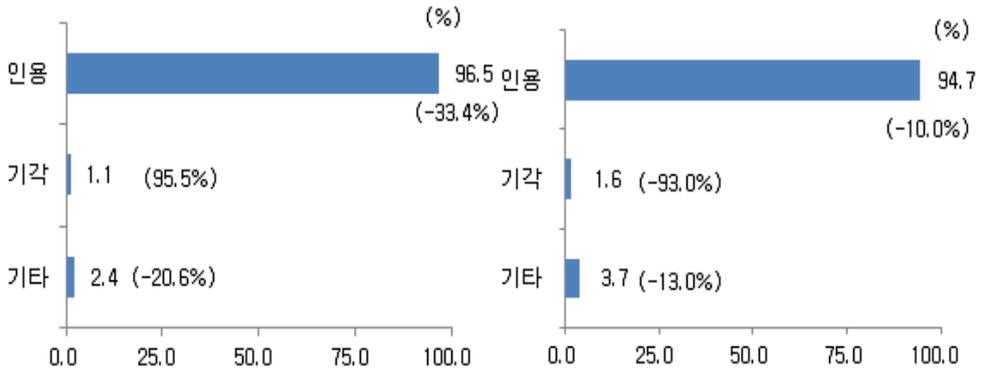
■ 4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4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296명으로 전월대비 9.6% 증가,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1.1%로 전년동월대비 95.9%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2.1%로 전년동월대비 84.6%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4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4월 면책 처리현황

##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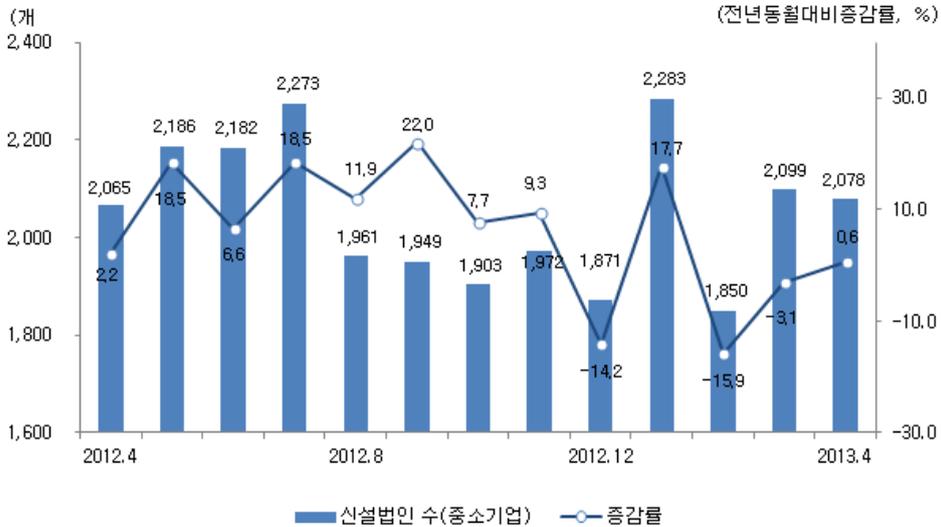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 서울의 4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78개로 전월대비 1.0%(21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0.6% (13개)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과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0.8%(1개), 2.1%(36개) 감소하였고, 제조업은 전월대비 5.3%(14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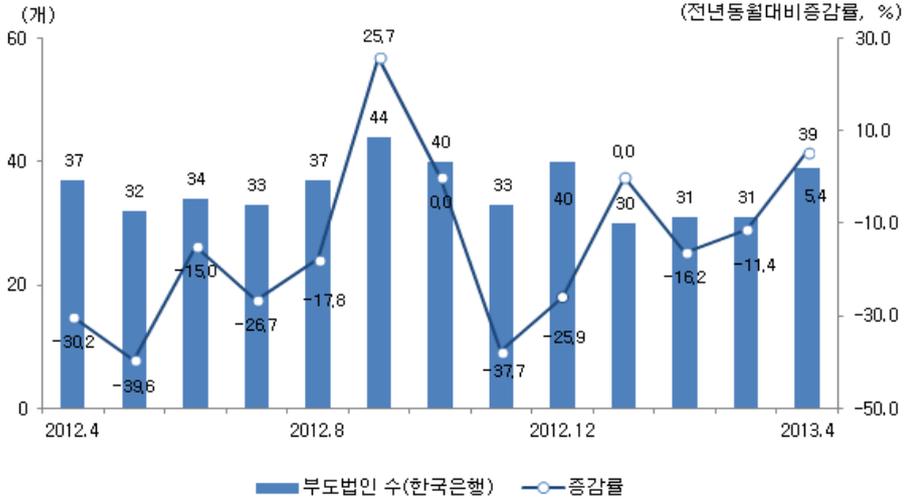
### ■ 서울의 4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9개로 전월대비 25.8%(8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5.4%(2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월대비 300.0%(12개) 증가,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 대비 각각 15.8%(3개), 28.6%(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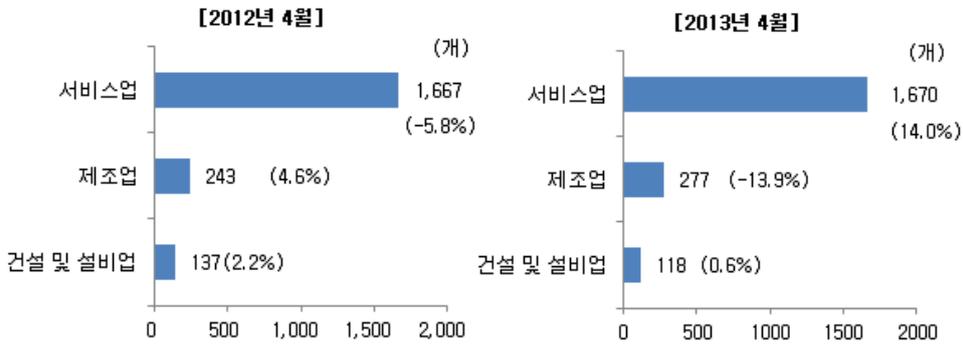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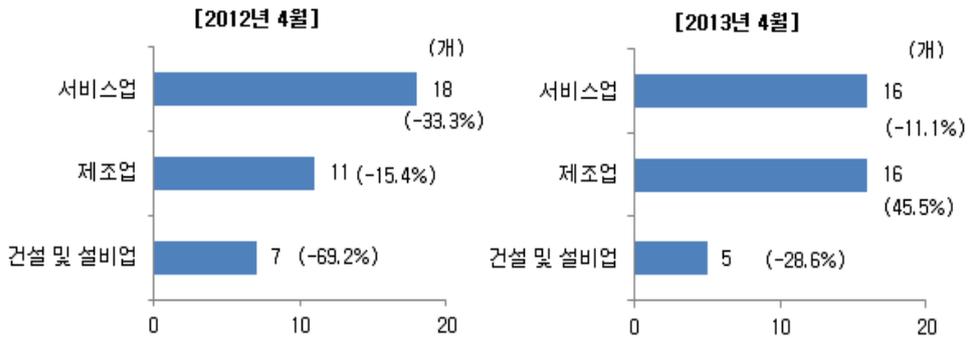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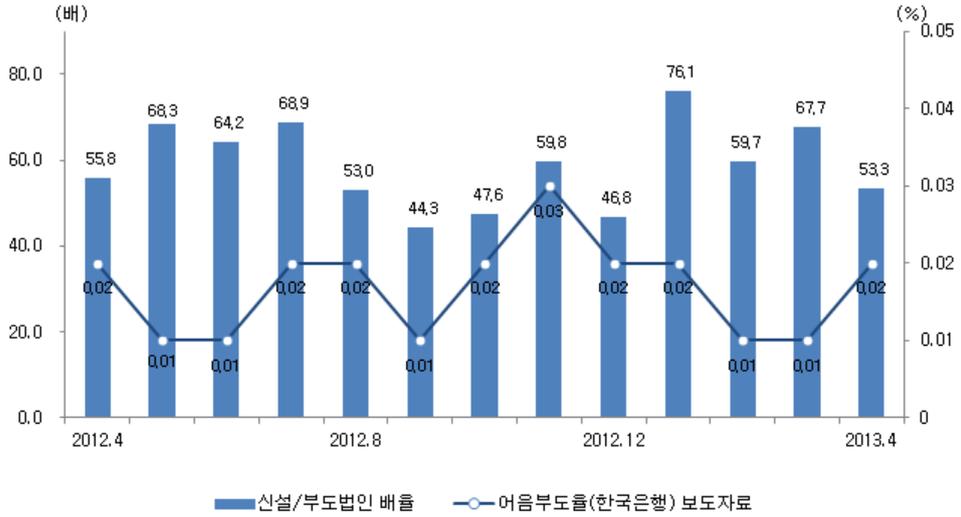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4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4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3.3배로 전월(67.7배)보다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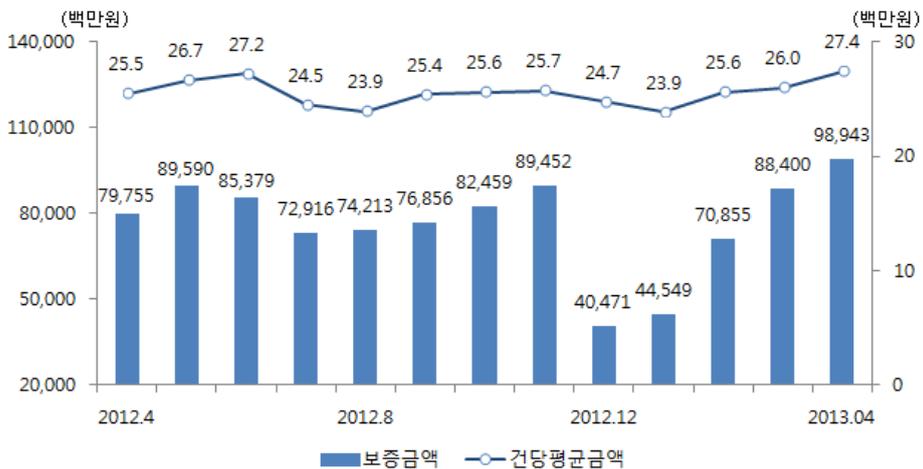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 신·용·보·증·동·향 |

## 서울의 4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

##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98,943백만원, 3,615건으로 전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11.9%, 6.3%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5.4%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24.1%, 15.5%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금액은 7.6%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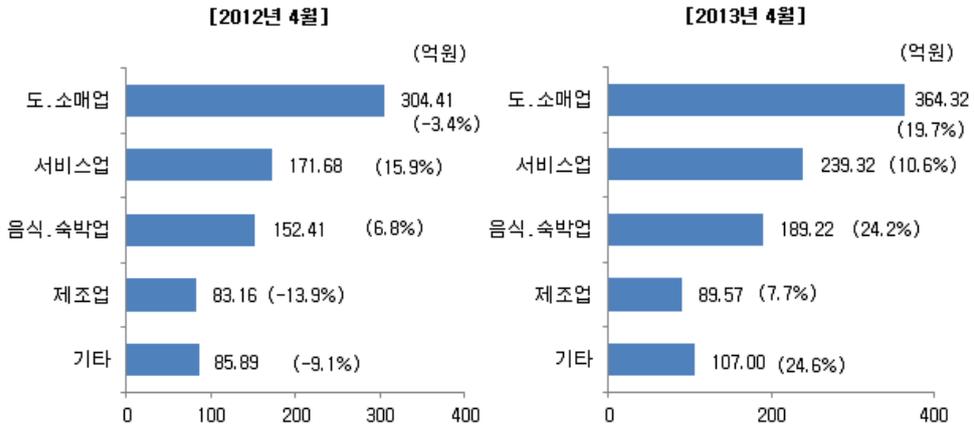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 제조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4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9.1%로 전월(10.1%) 대비 1.0%p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6.8%로 전월(37.7%) 대비 0.9%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8%로 전월(7.9%)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6.5%로 전월(37.2%)대비 0.7%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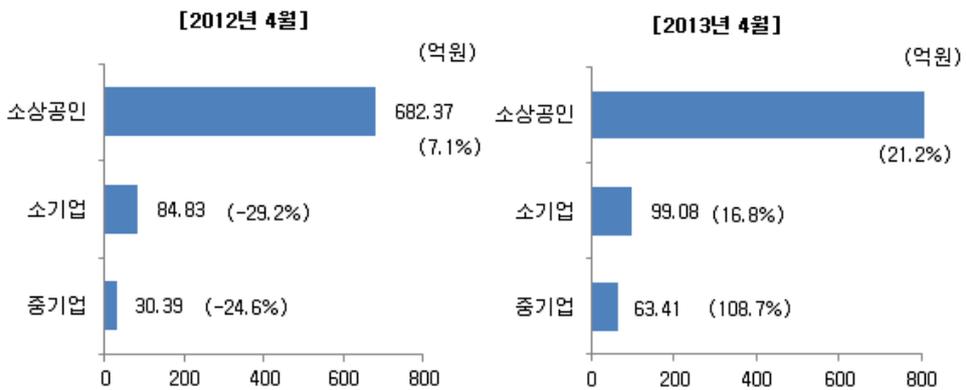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3.6%로 전월대비 0.6%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3.7%로 전월대비 0.2%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0.0%로 전월대비 1.7%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4.0%로 전월대비 0.5%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4%로 전월대비 1.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2.3%로 전월대비 0.4%p 감소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 수 · 출 · 입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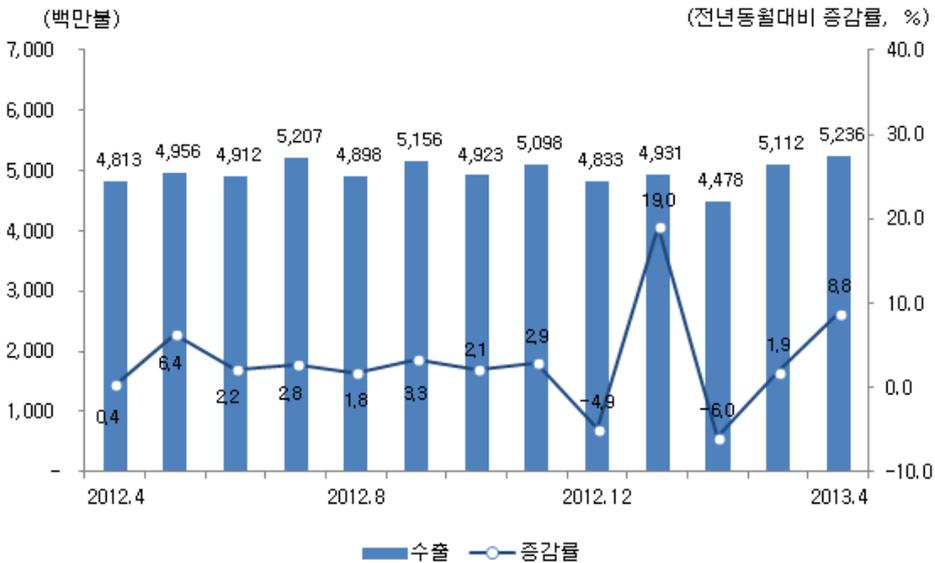
서울의 4월 수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 서울의 4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2.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8% 증가하였고 수입은 109.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6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고 수입은 438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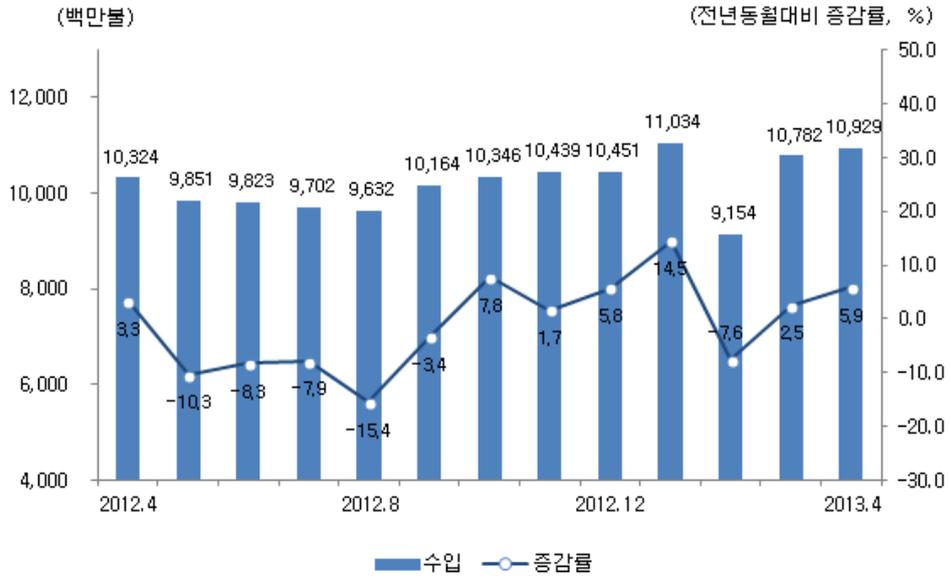
### ■ 서울의 4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16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85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자동차,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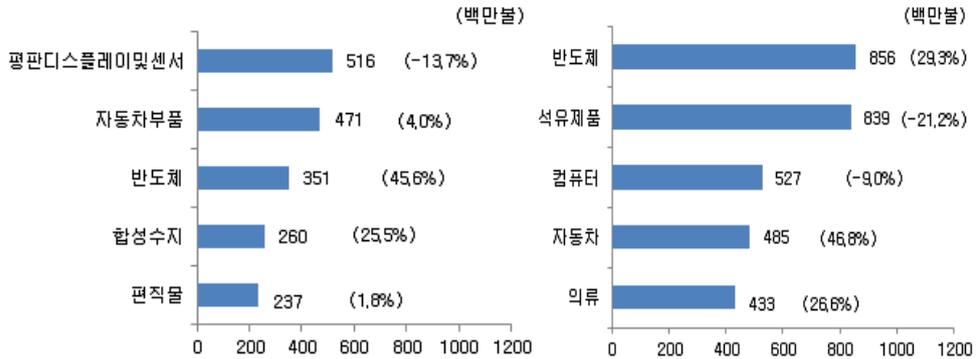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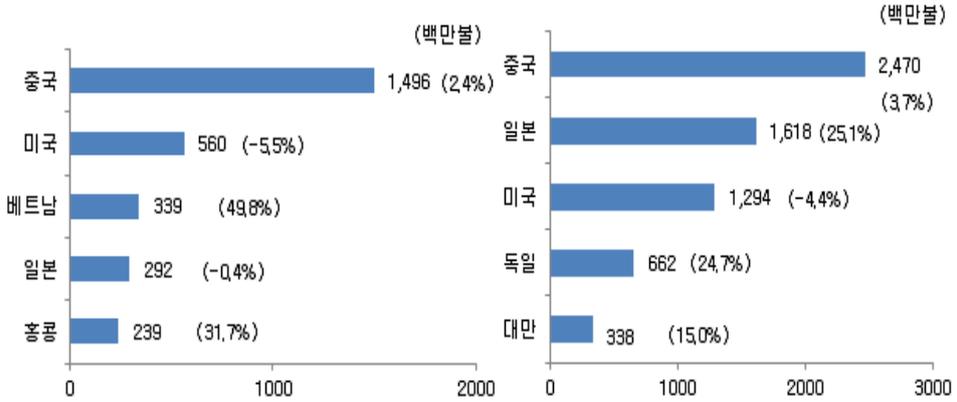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4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4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한 1,496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2,470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순



주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4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